

# “변화하는 시대 흐름... 동시대인에 메시지 전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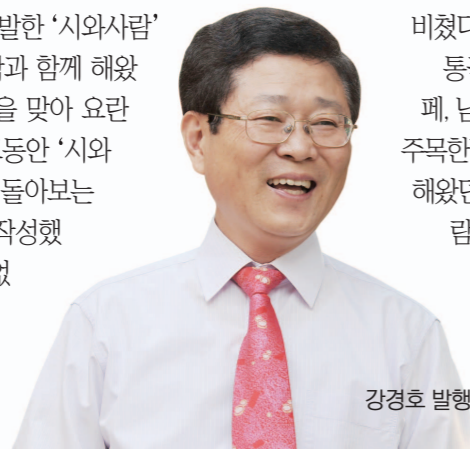
“누군가는 ‘ 벌써 30년이라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30대 후반에 창간했고, 어느덧 70대를 목전에 두고 있죠. 그동안 함께했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창간호부터 이번 30주년 기념호까지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꺼내 만지작거리곤 합니다. 창간호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던 동역자들의 젊은 패기와 온기가 스며 있는 듯한 질감을 손끝으로 느낍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46주기 날에 창간 30주년을 맞은 광주 대표 시문학 전문지인 계간 ‘시와사람’의 강경호 발행인이 그간의 30년 회고사를 정리해 밝힌 내용 일부다. 책박한 지역 문학 풍토에서 변함없이 1년에 네차례씩 계간 문예지를 발행하는 일이야말로 열악한 여건 속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도 거르지 않고 30년 동안 120호를 펴낸 것이다. 올 여름 호가 30주년 기념호다.

‘시와사람’은 시전문 문예지가 부재한 지역문학 풍토 속에서 광주민중항쟁 16주년을 맞은 1996년 5월 18일 창간됐다. 창간 목적은 5·18 광주정신을 잇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정경다라가 되자는 것이었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시 전문지로 평가받은 ‘시와사람’(발행인 강경호)이 5·18민중항쟁의 정신과 광주를 문학적 계승·발전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창간호를 펴낸 뒤 30년만에 기념호격인 통권 120호를 최근 펴냈다.

1996년 여름호로 출발한 ‘시와사람’은 결코 없이 지역문화와 함께 해왔다. 강 발행인은 30년을 맞아 요란스러운 기념식 대신 그동안 ‘시와사람’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담은 회고사를 작성했다. 강 발행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포착해 동시대인에게 메시지를



창간 30주년 문예지 ‘시와사람’... 시문학 견인에 온힘  
1996년 창간호 후 한 회도 휴간없이 통권 120호 펴내  
디카시 읽기·남도시인탐구·해시태그 등 내용 ‘다채’

보내야 하는 동시에 문예지의 운명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다양하게 분출되는 서정의 세계를 독자에게 배당하는 일에 충실해갈 뜻을 내비쳤다.

통권 120호에는 창간 특집과 시인카페, 남도시인탐구, 해시태그, 이 시집을 주목한다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기존에 해왔던 흐름을 유지하며 앞으로 ‘시와사람’이 나아가갈 다짐들을 투영했다.

먼저 창간 특집으로는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디카시 읽기’를 다뤘다. 이 특집은 요즘 또 다른 장르로 부각된

디카시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코너다.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문명의 발호 속에서 서정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 잡은 디카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내밀한 답문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디카시를 쓰는 디카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좋은 디카시가 어떤 것인지 사례를 들어가며 디카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시인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학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강대선 시인의 디카시조를 통해 ‘사진과 시조’라는 형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시인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그의 시세계를 조

명하고 있다.

‘남도시인탐구’에서는 이승하 교수(중앙대)가 고흥 출생으로 광주·전남의 대표 시인 중 한명으로 불리는 송수권의 장시집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내밀하게 분석하며 그의 작품세계를 살폈다. 송수권 시인은 올해 10주기(2016년 4월 별세)를 맞아 ‘남도시인탐구’가 더욱 더 주목되고 있다.

한국 시단을 빛내고 있는 젊은 시인의 시세계를 점검하고 신작시를 살펴보는 ‘신작초대석’에는 사운수 시인을 초대했고, 시인들이 이어 가며 좋은 시인을 소개하는 란인 ‘해시태그’에는 송기영 시인이 시와 소설을 함께 쓰고 있는 여성시인의

삶과 시세계를 조망하고 있다.

‘들춤과 감춤의 시학’ 연재에서는 탁월한 평론가 감동원이 새로운 감각으로 미래파 시인 여정의 시에서 다중적이고 신화적인 메타포를 감지하고, 시적 상징과 메타포를 분석하고 있으며, 동일성의 시학을 전복한 여정의 시 형식에 나타난 해체가 기존 문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예리하게 풀어보고 있다.

‘이 시집을 주목한다’에서는 서승현, 강대선, 강나루 평론가가 박관서의 ‘너를 보내는 동안’, 이숙현의 ‘푸레독 여자’, 김문홍의 ‘가족이라는 기후’, 엄민숙의 ‘밤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조선희의 ‘이제 너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정애경의 ‘꽃들의 작명소’를 다루며, 이 시집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외에 ‘시와사람 신인상’에서는 신옥비 시인을 선정했다. 신옥비 시인은 사물을 통해 감정을 우회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손, 귀, 입, 목, 숨과 같은 신체 감각을 정서 및 서사로 확장시키는 능력에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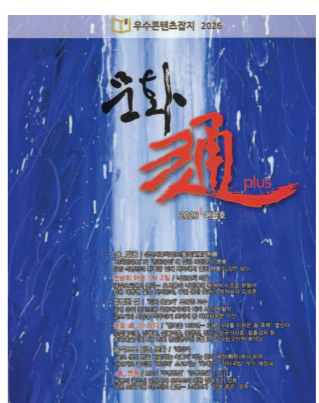
‘시와사람’은 30주년을 기점으로 지난 시간들 동안 변화한 우리 시의 모습을 추적하고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강경호 발행인은 회고사를 통해 “‘시와사람’을 창간한 이래 줄곧 ‘시와사람’과 함께한 지 30년이 됐다. 최후탄은 맞고 시인의 책무인 서정은 우람하게 자란 나무처럼 무성한 그늘을 드리우게 됐다. 이제는 시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 나서야만 하는 일도 줄어들었고, 각자가 자신만의 서정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인이 꿈꾸는 시대의 간극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시와사람’의 생명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시와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안내하며 포착해 동시대인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40주년에 발행인 내가 포사 ‘회고’를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 작은 얼굴들에 담긴 세계... 총명한 생의 순간

조영신 제2회 사진전 26일까지 광주 리아트센터  
감각에 대한 탐색...있고 지냈던 시간·감정 호출



‘성산계류탁월도’ 원화 발굴 공개  
‘문화通 plus’ 여름호... 내용 다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마주한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흐르는 감수성을 조율해 불러내는 조영신씨의 두 번째 사진전이 지난 4일 개막, 오는 26일까지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리아트센터 1층에서 ‘작은 얼굴들, 하나의 세계’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그의 작품에는 낮은 장소와 문화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시선과 표정이 놓여 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 호기심과 수줍음, 꾸밈없는 미소와 장난기가 자연스럽게 겹쳐지며,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년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진 속 아이들은 이국적인 풍경을 설명하기 위한 장식적 존재가 아니다. 그의 카메라는 문화와 언어, 종교와 생활환경의 차이를 넘어 아직 세상의 속도에 걸들여지지 않은 눈빛과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태도를 포착한다.

이는 인간 안에 가장 오래된 감정, 즉 삶을 높이 치켜 받아들이는 감각에 대한 탐색이며,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있고 지냈던 시간과 감정을 다시 호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의 초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다. 아이들을 동경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제



현하지 않으며, 가난이나 결핍의 상징으로 소비하지도 않는다. 관람자로 세상을 아이들을 그렇게 해석해줄길 요구하는 듯하다.

화면 속 아이들은 각자의 눈빛과 몸짓, 표정을 통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정면을 응시하는 호기심 어린 눈, 시선을 비껴가는 부끄러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은 이들이

하나의 집단지 이미지로 환원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색채가 제거된 화면 속에서 관람자는 피부 색이나 지역적 정보보다 표정과 눈빛, 손짓과 움직임에 집중하게 된다. 빛은 아이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거나 강한 대비로 드러내며, 그 안에 머무는 감정을 조용히 강조한다.

출생기를 하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특정한 사회적 서사로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총명한 생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지는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다름’의 나열이 아니라 ‘연결’의 감각이다.

서로 다른 나라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태도가 공통으로 흐른다. 작은 얼굴들은 하나의 세계처럼 이어지며, 관람자에게 묻는다.

관심이 가는 작품으로는 니킵을 쓴 이슬람 여성들이 줄지어 어딘가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유독 긴장된 공기를 형성한다. 얼굴 대부분이 가려진 채 드러난 눈빛은 불안과 경계,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주저함을 머금고 있다.

카메라는 그들이 향하는 ‘안쪽’의 공간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므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그 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하게 만든다. 이는 작가가 그 여성들을 대상화하거나 특정 상황의 상징으로 소비하지 않고, 개별 존재의 감정 상태를 존중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그의 사진 앞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동시에, 타인을 규정해 왔던 자기 자신의 시선을 되돌아보게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공동체 변화 이끌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양성과정

광주여성가족재단, 26일까지 공동체·참여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오는 26일까지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개인 또는 공동체를 모집한다.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양성과정은 성평등 마을 실현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마을활동가의 성인지 역량강화와 여성친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2026년 광주여성친화마을로 지정된 시·자치구 공동체와 성평등 마을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 마을자치 관련 단체, 여성친화마을에 관심있는 시민 등이다.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은 여성친화도시 이해, 여성친화마을 활동가의 역할,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광주형 여성친화적 돌봄, 여성친화 공간 구성의 이해를 주제로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된다.

또한 마을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액션플랜 실천 워크숍과 성평등 마을 선진지 견학이 예정돼 있다.

교육을 수료한 개인 및 공동체에게는 차년도 여성친화마을 사업공모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여성친화마을 관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제공된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

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체성의 복원이 절실하며 여성친화마을은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성평등한 일상의 설계자이자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양성과정은 오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1층 북카페에 새삼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웰자보의 큐알코드나 우선선전화번호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64.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사)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通plus’(발행인 지형원) 여름호(통권 59호)가 발간됐다.

이번 59호에서는 그동안 ‘서하당유고’나 ‘청량유집’에 목판본으로만 전해지던 ‘성산계류탁월도’(聖山溪柳濯熱圖) 원화를 발굴해 공개했다. 성산계류탁월도는 담양 식영정과 환벽당 일대 계곡에서 서하당 김성원 등이 시회를 열었던 장면을 그린 가로 67cm, 세로 51cm 크기로 그림 좌우에 명단과 시 2편이 써여 있다.

장기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 2일에서는 낙원오씨 집성촌인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와 무안군 몽탄면 돛토리 일대의 문화유적과 역사 인물, 근현대 인물을 조사했다.

또 ‘음식으로 읽는 문화’ 코너에서는 해장국을 다뤘는데 어원은 ‘술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속물이’라는 뜻의 해정(解?)에서 유래했다는 것과 사라져가는 전라도 토속음식을 찾는 ‘전라도 밥상’에서는 황가오리회와 찜을 소개했다.

‘명작, 그 사연’에서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집중 탐구했으며, 인터뷰 코너에서는 작두 타는 목공예가 조규춘 교수, ‘예술공간 집’ 문희영 대표, 춤추는 무용연구가 최지선씨를 만났다.

이밖에도 노영매 변호사의 ‘노변한담’ 전남도청 복원, 전남의 나무, 유명전설이 된 트로트 오디션 ‘무명전설’ 뒷얘기 등이 수록됐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